



오늘의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19절

오늘의 주요 기사

- 2 하나님의 선교 특집
- 3 겨자씨 / 겨자씨인도자수련회
- 4 영어예배사역

- 5 중보기도부 월례회
- 5 중등부 부모초청예배
- 6 교사일기

- 6 여전도회 연합예배
- 7 십자말풀이
- 8 공동체 소식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한 분의 사랑 안에서 만나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에도
누군가 곁에서 기도해 주고
넘어질 때 조용히 일으켜 주는
사랑이 숨 쉬는 공동체

마음을 열기 두려울때에도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 주고
상처를 감싸 안아 주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곳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아파도
성령님께서 이어 주시는 사랑으로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는 곳

내가 누군가의 기도가 되고
누군가 나의 기도가 되어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금 같은 공동체

오늘도 인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네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곳,
주님의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4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 (에베소서 6장 18절)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기도의 힘이 가정을 변화시킨다.

오늘날 가정은 여러 가지 도전과 변화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거리감이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이 하나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가족이 영적으로 연합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의 특징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문제와 기쁨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습관을 갖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해 중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 가족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식사 시간이나 가족 모임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기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을 때,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기도는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예배와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이 더욱 깊어집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가족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짧은 기도 습관을 들입니다. 기도는 꼭 긴 시간동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짧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됩니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하루를 위한 짧은 기도하기, 식사 후 짧은 감사 기도 드리기, 출근이나 등교 전 가족이 손잡고 축복 기도하기 등을 실천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 구성원별 기도 노트 만들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공책에 가족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한 구성원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면 다른 가족들도 기도를 중요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족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기도를 어려워할 때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결론

기도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가정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_데살로니가전서 5:16-18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겨자씨

작지만 강한 힘, 겨자씨 모임의 소중함

마태복음 13장 31-3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겨자씨 모임 역시 작은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믿음이 점점 커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함글함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모임

겨자씨는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자라면서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소모임도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몇 가정이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십니다. 초대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작은 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겨자씨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은 모임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이 식어지기 쉽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모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마태복음 5:13-16). 겨자씨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임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새가족을 환영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겨자씨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지게 됩니다.

소중한 겨자씨모임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겨자씨처럼, 우리의 겨자씨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글함글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기도 위에 꿈을 싣고

주님의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오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올 한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교회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램스(LAMS)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올 한해 우리가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겨자씨 모임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으며, 대전 한빛감리교회 담임목사이신 백용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 힘써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강의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겨자씨 인도자분들과 함께하며 이제 시작되는 2025년 1학기 겨

자씨 모임을 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인도자분들의 기도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우리 주님의교회 겨자씨 모임들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웃으며 교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인도자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우리 주님의교회 가족들을 보았고, 이처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2025년 주님의교회가 겨자씨라는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박정민 전도사

영어예배부
사역소개

영어예배사역을 소개합니다

영어예배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외국인과 한국인이 하나 되어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앙의 차이와 질문, 때로는 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와 공부, 그리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The English Ministry is a community where people with a desire and thirst for God gather. Foreigners and Koreans are together worshipping God in English. We all confess to sinners before the Lord and strive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by turning to Christ. Despite the differences in faith, we have questions and doubts, and we don't have all the answers, but we seek them in community through study and companionship.

찬양과 예배

우리는 찬양을 예배의 중심 요소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어로 드리는 찬양은 한국어 찬양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예배의 기쁨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리딩 밴드와 모두가 함께 부르며 동참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교제와 성장

예배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성도들 간에 친목과 유대를 쌓습니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영어로 된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서로의 신앙 경험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외국인과 귀국민 그리고 한국 성도의 건강한 공동체

늘어나는 한국 체류 외국인들에게 영어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따뜻한 영적 안식처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모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귀국민과 영어를 통해 한국어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제자로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어진 은사를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영어예배 사역은 매주일 11시 1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English Ministry seeks a healthy church. We welcome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community and know God, grow close to Him as a disciple, and spread God's gifts to his neighbors through his own life.

The English Ministry welcomes everyone who wants to worship and praise God together in the worship room on the first floor at 11 a.m. on Sunday.

홍석범 집사 / 영어예배부

(사)섬김과나눔
회원총회

(사)섬김과나눔 2025년 1차 회원 총회

지역사회 복지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섬김과나눔 2025년 1차 회원총회가 2025년 3월 18일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다.

연임: 김익훈 이사, 신임: 채모세 이사, 손영익 이사(교회 서기장로 당연직), 유정식 감사(교회 감사 당연직), 조병길 감사

함글함글



중보기도부
서약서 작성

중보기도 서약서 작성

중보기도부 월례회에서는 3월 4일(목) 중예배실에서 230여명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자로 지켜야 할 중보기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중보기도부 담당 박민규 목사와 함께 합심기도를 마치고 중보기도 사역자 모두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함

[합심기도]

1.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 막연한 낙관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2.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3. 대한란의 시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음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4. 우리 교회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관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5. 세계의 교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머무는 곳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6. 각종 압제와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서약서]

중보기도 서약서

본인은 주님의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님의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중보기도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지키고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 사역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중보기도실에서 드러지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모든 기도 내용은 비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할 것을 서약합니다.

중등부
부모초청예배

도리도리

팝콘트리 중등부는 지난 3월 16일(주일) “도리도리”라는 주제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와 마라톤 경기로 인해 ‘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실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총 294명(부모 100명)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팀과 워십팀에 인도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이 열리고, 3학년 7반 학생들의 섬김으로 예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도리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통해 육신의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신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삶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이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학생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중등부 일정과 사역들을 알아갔고 이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담임선생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등부 부모초청예배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해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팝콘트리 공동체가 지으신 그대로 빛나는 존재인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며, 교회는 이러한 가정들을 품고 나아가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팝콘트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찬양 전도사 / 중등부



VIP ministry 앱

YouTube

Instagram

주님의교회 청소년부

팝콘트리 중등부

포어: 로로하자1419! Peace Messenger

교육목표:

-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속에서 경험하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신저
- 가정안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피스메신저
- 혼자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피스메신저

교장 김희수 목사, 교목총괄 위원 김현희, 전임교역자 주찬양전도사, 교목교역자 오성민전도사, 부교장 정재영 목사, 감 이경희 권사, 2학년부장 김민정, 3학년부장 신민희, 새·약·민 박정민

중등부 사역일정 - 상반기

1월	2월	3월
1월 1일 생일 축하	2월 1일 생일 축하	3월 1일 생일 축하
1월 15일 생일 축하	2월 15일 생일 축하	3월 15일 생일 축하
1월 30일 생일 축하	2월 30일 생일 축하	3월 30일 생일 축하
1월 31일 생일 축하	2월 31일 생일 축하	3월 31일 생일 축하

하반기

7월	8월	9월
7월 1일 생일 축하	8월 1일 생일 축하	9월 1일 생일 축하
7월 15일 생일 축하	8월 15일 생일 축하	9월 15일 생일 축하
7월 30일 생일 축하	8월 30일 생일 축하	9월 30일 생일 축하
7월 31일 생일 축하	8월 31일 생일 축하	9월 31일 생일 축하

예배팀 소개

찬양팀

목소리 밴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찬양팀입니다.

워십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는 워십팀입니다.

기악팀

오케스트라악기를 통해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는 기악팀입니다.

임원단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팝콘트리를 밝히는 우리는 학생 임원단입니다.

중등부 사역소개

1. VIP ministry 앱

2. 방학식

3. 데이아웃

4. 그 외 SNS



교사일기
유아숲1부

밭에 감추어진 보물같은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기존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1부를 하나로 통합한 유아숲1부는 16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함께 1층 유아부실에서 예배합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교사들이 모여 연령별로 나뉜 반 이름이 적힌 깃발을 세워 아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뒷편에는 일곱 개의 원형 상을 배치하여 분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오전 8시 40분에는 목사님께서 당일 아이들에게 주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경건회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하나 둘씩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환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예배는 9시 10분경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됩니다. 율동 선생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율동과 함께 드리면, 유치부 아이들은 익숙한 찬양이 많아 곧잘 따라 하지만, 유아부나 영아부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3월부터는 유치부 아이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훨씬 더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숲1부에는 자매나 형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 언니가 찬양팀에서 앞에 나와 찬양을 하면 동생도 용기를 내어 나란히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요즘에는 아기 같았던 영아부 아이들도 귀여운 몸짓으로 율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각 부서가 따로 예배드릴 때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니다. 어린이들은 유아숲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고백을 하고, 이어서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율동으로 배우는데, 2월부터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암송한 영상을 보내 주시면 목사님께서 편집하여 예배가 끝난 후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입술로 말씀을 암송하거나 부모님이 한 소절씩 알려주시는 모습을 따라 하는 장면에서는 웃음꽃이 터집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통해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배 중에는 한두 명 정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도 하지만, 유치부 예배 때라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동생들 앞에서는 말씀에 집중하며 모범을 보입니다. 또한, 영아부 아이들 역시 투정부리는 대신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 선포 후에는 봉헌, 봉헌 기도, 축도, 광고 순서가 진행되며, 이어서 기다리던 반별 활동 시간이 시작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그날 배운 말씀의 핵심을 짚어 주고,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십니다. 확실히 개별 부서 예배보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연령별 선호를 고려하여 준비한 간식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예배가 마칠 시간이 되고, 아이들을 한 명씩 배웅한 후 교사들끼리 모여 정리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일을 기약하고 나면 어느덧 10시 30분이 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의 어려운 형편과 혼란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아숲1부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새겨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모두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깨우고, 먹이고, 입혀서 9시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형민 안수집사 / 유아숲1부 부장

여전도회
연합예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2025년 여전도회 연합예배가 2025년 3월 12일(수) 중예배실에서 2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2025년 여전도회 임원들의 특송으로 찬양을 드렸다.



설교는 새봉천교회 허준 목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마친 후 노봉옥 은퇴장로가 주님의교회 발자취와 창립 이념 등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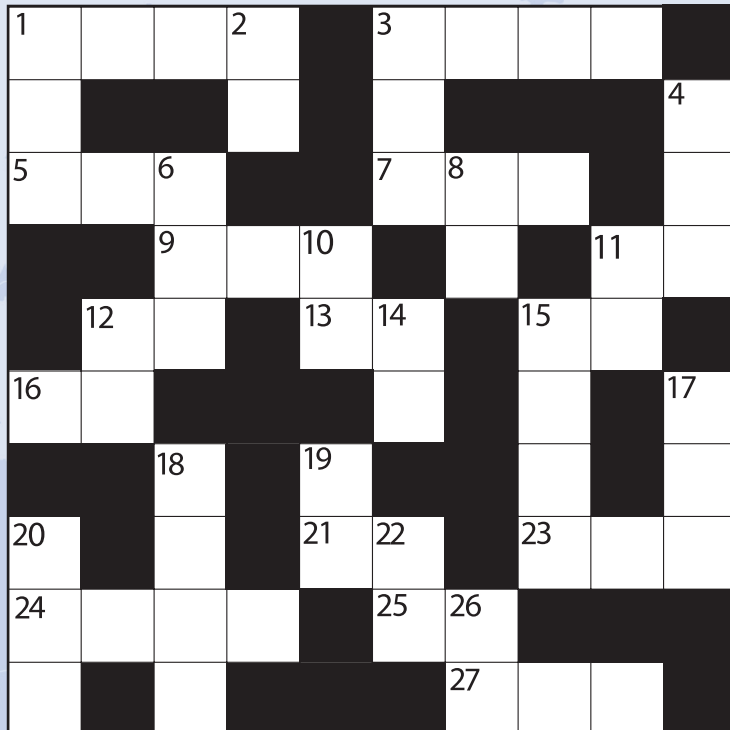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여전도회는 연령에 따라 6개 여전도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성인 여성 교인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에 헌신 봉사함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마태복음 편

이번 호는 신약의 가장 첫권인 <마태복음>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57호 '말라기' 편 정답



가로 힌트

- 성경 가운데 신약의 가장 첫번째 책. 세관원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다.
- '떡집'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지명.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으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마 2:1)
-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되었다. (마 1:7)
- 가버나움을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낸 적이 있다. (마 4:13)
-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마을. 예수님이 이 지역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 (마 11:21)
- 공기와 같은 물체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어 귀에 들리는 파동. 같은 이름을 가진 배우도 있다. (마 2:18)
-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혈통. 때로 학풍이나 사조의 흐름을 말하기도 한다. (마 1:1)
- 주로 신을 모시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은 집.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했었다. (마 4:5)
- 왕의 다른 말. 노동자가 받는 보수와 한글 표기가 같다. (마 2:22)
- 사람이나 동식물등 생물에게만 있는 성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 (마 7:14)
- 다른 사람을 따라 다니며 시종을 드는 것.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마 4:11)
- 이스라엘의 선지자. 바알의 사당을 만들었던 아합 왕을 경고했다. (마 11:14)
- 보통 하루를 산다고 알려진 곤충. 성충의 수명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이다. (마 23:24)
- 날마다 씹. 하루 하루 쓰거나 먹는 것을 말한다. (마 6:11)
- 문서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관리. 이스라엘 시대에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도 했다. (마 2:4)

세로 힌트

-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부인으로, 혼인 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마 1:16)
-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조리한 요리. 식재료를 조리하여 차린 모든 것을 두루 부르기도 한다. (마 3:4)
- 아굽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 헤스론의 아버지이다. (마 1:3)
-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지역. 같은 이름의 호수도 있다. (마 2:22)
- 세베대의 아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 (마 4:21)
- 법률에 어긋남.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 7:23)
- 신과 같이 높고 거룩함.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별한 대상을 뜻한다. (마 9:3)
- 짠맛을 내는 결정체. 이것으로 음식의 간을 하거나, 어떤 유기물을 상하지 않게 한다. (마 5:13)
- 주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열 개의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마 15:3)
-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널리 알림. 사상이나 문화가 여러 곳으로 전달될 때에도 이 말을 쓴다. (마 3:1)
-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것의 실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1:23)
- 빛세바의 남편. 빛세바를 탐한 다윗의 음모에 의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마 1:6)
-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 때부터 도읍지였다. (마 4:25)
-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보낸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마 28:18)
- 유다의 12대 왕. 이방 민족의 풍습에 따라 우상에게 아들을 바쳤다. (마 1:9)
- 하루의 해가 뜨고 저무는 동안.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마 20:6)
- 잘못한 일이나 죄를 범하지 않음. 미국의 배우이며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받지 못한 자"(1992)라는 영화도 있다. (마 6:14)

담임목사동정

세계선교사회 연합세미나

2025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사이공 드림교회에서 PCK 세계선교사회 연합세미나가 열렸다. 주님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화수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복음 사역의 본질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했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교사들은 경청했다.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며 본인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모임과 교제

의 시간을 갖고,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선교사들은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미나는 세계 선교사들의 연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함글함글



교회일정

- 3/23(주일) : 사순절 셋째 주일
성경필사책 합본(Vol. 10~12) 배부
비전트립 물품 후원(~3/30까지)
- 3/30(주일) : 사순절 넷째 주일
입교 및 세례 교육(~4/13까지)
- 4/2(수) : 2교구 연합 수요기도회
- 4/4(금) : 해피맘스쿨 11기 시작(~5/23까지)
아기정원 31기 시작(~4/26까지)
- 4/5(토) : 아름다운부모학교 시작(~5/24까지)
- 4/6(주일) : 사순절 다섯째 주일

알립니다

- 1. 1,2차 성지순례 추가 모집
성지 :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일정 : 6/9(월)~19(목), 6/30(월)~7/10(목)
신청 : 3/26(수)까지
문의 및 신청 : 이대혁 목사(010.9006.9129)
윤경수 목사(010.9407.3709)
- 2. 해피맘스쿨 11기(온라인) 모집
대상 : 임산부
기간 : 4/4~5/23(매주 금) 오후 1:00~2:00
신청 : 김은선 목사(010.4773.8186)
- 3. 아름다운부모학교 모집
대상 : 학부모(예비 학부모 포함)
기간 : 4/5~5/24(매주 토) 오전 9:30~11:30
장소 : 대회의실(4층)
회비 : 3만원
신청 : 배윤환 목사(010.3138.3262)

모집합니다

-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서정하 장로(010.9554.9715)
- 2. 주차안내부원
시간 :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497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진주현 집사(8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

아름다운 부모학교

• 기 간 4.5 - 5.24, 매주 토요일 오전 9:30(8주)
• 장 소 4층 대회의실
• 대 상 학부모, 예비학부모
• 등록비 3만원 (교재비 등)
 *입금 계좌: SC제일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입금자명: 김화수 목사+이름 (ex) 아름다운000
 QR링크 4/3(목)까지 신청

주차	일시	교육주제
1주	4.5	기독교학부모는 누구인가
2주	4.12	기독교학부모의 교육보기
3주	4.19	기독교학부모의 자녀 이해
4주	4.26	어호와 경의 교육
5주	5.3	성품 교육
6주	5.10	학업과 온사 이해
7주	5.17	기독교학부모의 학교
8주	5.24	기독교학부모운동과 하나님 나라

*문의 | 배윤환목사 010-3138-3262

2025

토요 부모 기도회

나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 일시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3/29, 6/28, 9/27, 12/27
• 장소 1층 소메배실 (애니멀러스홀)
• 문의 방윤주 목사 (010-3076-3021)